

동서식품, 사회복지관 아이들과 여름 나들이

맥심 커뮤니티 회원들과 봉사활동 진행

동서식품은 자사 커피 브랜드인 '맥심'의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봉사활동인 '맥심 사랑나눔 여행'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맥심 사랑나눔 여행'은 동서식품 임직원들과 '맥심' 소비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그녀들의 커피 이야기' 회원들이 매년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하는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동서식품 임직원과 커뮤니티 회원들은 아이들을 위한 포스트 시리얼과 오레오 등 다양한 간식을 복지관에 전달하고, 복지관 아동 20여명과 잡살 및



동서식품이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아이들과 '맥심 사랑나눔 여행'을 진행했다. /동서식품

데월드 아쿠아리움을 견학하는 등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 박선민 씨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사회와의 소외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대형마트 역차별?



기지 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주요 대형마트가 2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위기론이 대두된 가운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 Market/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대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안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출점 제한과 영업일수 규제, 의무휴업 등이

다. 대형마트는 당장 추석연휴인 9월 둘째주가 '대목'임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를 뒤로하고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인근 전통시장 매출도 같이 줄어들었다.

실제 지난 2017년과 2018년

한국유통학회 등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샘플조사를 벌인 결과를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규제로 쉬는 날 주변 반경 3km 이내의 주변 상권의 소비증가율은 규제 초기인 2013년 36.9% 증가했으나 2016년엔 6.5%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면 소상공인이 살아날 것이라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상생'을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현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때 그때 온라인 주문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1·2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대형마트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준대형 할인마트(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법 규제 대상이 유통 대기업으로 한정되는 게 오히려 역차별은 아닌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때다.

/tree6834@metroseoul.co.kr

CJ프레시웨이 골프장 신메뉴 경진대회 개최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9일 본사 조리사 카데미에서 골프장 소속 전문 조리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신메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개수는 500개를 넘어섰다. 10년 만에 약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대형마트 점포 수와 비슷할 정도로 많아졌다. 그만큼 골프장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경기 중에 맞

보는 요리와 식품(F&B) 서비스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골프장에서 식음료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는 매년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메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 중 하나인 전골류와 단품 요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맛과 플레이

팅, 점포별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부문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1명씩 총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전골류 부문에서는 시흥 솔트베이CC 김학기 셰프의 '묵은지 왕갈비 맑은탕', 단품 요리 부문은 비발디파트CC 정찬호 셰프의 '왕꼬막도토리묵 무침&애호박부추전'이 각각 최우수상으로 뽑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 개발된 총 30여가지의 요리는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국 골프장에서 가을 시즌 동안 선보일 예정이다.

/박인웅 기자

오늘의 운세 8월 21일 (목) 7월 21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뒤라. 48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 온다. 60년생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휴식. 72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을 편하게. 84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 소** 37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49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거레가 순조롭다. 61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가 적다. 73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85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 호랑이** 38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서 살아야 복이 온다. 50년생 투자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라. 62년생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한 하루. 74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무사히 달성. 86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 토끼** 39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51년생 중요한 일은 비밀스럽게. 63년생 내키지 않아도 기어만 한다. 75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87년생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만 그래도 인내를.
- 원숭이** 40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도장은 내일 찍어라. 52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64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긴다. 76년생 성실하게 쌓은 능력을 인정받고 축하 받을 운. 88년생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
- 뱀** 41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53년생 순풍에 돛단배가 듯이 순조로운 하루. 65년생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좋지 않다. 77년생 돌아갈 수 없어서 어제가 더 그립다. 89년생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마라.

- 말** 42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 54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담비는 격. 66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ผล. 78년생 일이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우려. 90년생 남을 위한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된다.
- 양** 43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55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본 마음으로. 67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79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구가 귀인이다. 91년생 남들보다 앞서서 가는 것이 불행.
- 원숭이** 44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없는 날. 56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벅찬 하루. 68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80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하다. 92년생 시작한 일에 기대가 많으나 실리는 별로 없다.
- 닭** 45년생 아랫사람과의 불화가 의심되니 주의. 57년생 기회가 주어지지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 69년생 급제를 조심. 81년생 확실한 거절은 상대에게도 도움 된다. 93년생 같은 세라도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
- 개** 46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과 양보를 해야. 58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7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좌절안식. 82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이 되니 견뎌야 한다. 94년생 산책을 하며 머리를 식혀보자.
- 돼지** 47년생 지나가 내 노력에 동참하지 않아 힘들 것. 59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71년생 강을 건넌다고 배는 소중히 간직. 83년생 이성과 가벼운 만남을 경계. 95년생 운이 나쁘니 무관심이 오히려 좋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1	7	2			
		1	2		3			
	2			5		1	8	
	3		6				1	
		4	5		3	6		
7			1			2		
1	6			3		5		
		2			5	8		
8	3	4						9

1			6		2			3
		3		7		2		
	5		4		3		6	
		2		8		1		
			1		6			8
8				5				3
4	3			2				7
			1		6		8	
			9		5			

스도쿠 정답								
6	2	1	9	3	7	5	8	4
9	8	5	4	1	2	7	6	3
7	5	2	8	6	4	9	1	3
5	2	7	1	8	9	6	4	3
4	8	9	6	5	7	1	2	3
1	7	6	2	9	4	8	5	3
8	1	7	4	5	9	6	2	3
5	9	6	8	2	1	4	7	3
2	6	4	1	7	5	8	9	3
2	1	5	7	6	4	8	9	3
7	6	8	2	9	5	1	3	4
5	2	9	1	4	5	6	8	7
9	5	1	6	8	2	7	4	3
4	9	6	5	1	7	8	3	2
1	7	2	8	4	5	9	6	3
3	8	5	2	6	9	7	4	1



김상회의四季

기도원력

형체를 믿든 안 믿든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 있다. 아무리 모른 척하려 해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기 마음까지 속일 수는 없다.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해서 짓는 불선업의 과보가 반드시 그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다 치자. 그러면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이 어땠겠는가. 아무리 연좌제가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남은 가족들은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가족으로서 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평생 트라우마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세간살이는 번뇌 없이 사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불보살들의 원력이 된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장보살본원경에서 "미래에 세상이 다할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죄업으로 인해 지옥고를 받고 있는 유주무주 고탈들은 물론 고통을 받는 모든 육도중생들을 방편을 베풀어 다 해탈시키고 나서야 성도를 이루겠다"고 서원하였다. 우리 중생들은 지장보살님만큼의 원력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힘닿는껏 서원을 세우고 마음과 행을 닦으며 발원을 세운다면 분명 그 사람의 삶은 편안해진다. 과거 생에 지은 죄의 업장으로 장애와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원력으로 나투신 지장보살님의 상을 보거나 그리거나 지장보살의 존호를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되게 하겠다는 지장보살의 크나큰 원력이시다. 원력을 새기며 필자는 삼 년 전에 꿈에 현몽하신 나투신 그 모습대로 지장보살님을 서오릉월광사 마당에 석불로 조성하였다. 원력의 성취는 이뤄질 것이라 굳게 믿으며 모처럼 시원스럽게 내려주는 빗줄기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기도의 원력을 발원해 본다. 작은 믿음이 쌓여 큰 공덕을 이루는 법이니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상회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6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70호